

담화 내 계층 구조의 개념 구조적 기술

Conceptual Description of Hierarchical Structure in Discourse

구 유 선*
(Yu-son Koo)

요약 과거 서술 연구 중심의 주구조와 부구조의 차이는 적절하고 형식적인 정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주구조, 하위구조, 부구조를 구성하는 담화 단위 사이에 계층 구조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Kuppevelt가 제안한 주구조를 하위구조나 부구조와 구별하는 식별기준을 나타내는 형식적 정의를 제시한다. 둘째, 지식 표현 언어인 Sowa의 개념구조론의 체계 내에서 담화의 계층 구조와 그 구조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시인 담화 표지의 예를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개념관계로 일탈, 화제 전환, 틀의 관계를 설정하여 담화 내 계층구조와 담화 부분과의 화용적인 관계를 규명하였다. 기존의 개념구조론은 선택적 제약, 조응 등의 의미론적인 개념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는데 화용론적인 측면의 기술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담화구조, 개념구조론, 담화표지, 일탈, 화제 전환, 틀

Abstract The distinction between main structure and side structure in discourse which was central to narrative studies has lacked an adequate, formal definition. This study supports the contention that there exists a hierarchical structure between discourse units constituting main structures, substructures, and side structures. The aim of this study is twofold: (i) to present an adequate, formal definition that provides a general identification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main structure from substructure and side structure proposed by Kuppevelt, and (ii) to propose conceptual relations representing hierarchical structures in discourse based on Sowa's Conceptual Structure Theory. The proposed conceptual relations which represent hierarchy and pragmatic relations of discourse segments are: DIGR (digression), T-SHFT (topic shift), and FRAM (frame). This study shows pragmatic functions can be incorporated within CST in a systematic way.

Keywords discourse structure, Conceptual Structure Theory, discourse markers, digression, topic shift, frame

1. 서론

서술적 연구의 중심인 담화 내 주구조와 부구조의

구분은 최근 언어학 분야만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에서도 연구의 관심이 돼 온 담화 표지와 함께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담화 내에서 부구조를 주구조와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정의에 따라 담화 내에서 담화 표지들이 담화 구조를 보여주는 예를 개념구조론의 체계 내에서 기술해본다.

언어학, 의미론, 인공 지능 분야 등 담화 관련 연구에서 부분의 현저함의 차이 때문에 잘 형성된 담화의 구조는 동일성을 갖지 않는다. 담화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담화단위와 기여되어 있지만 연관된 부구조

•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Language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연구세부분야 : 언어학, 의미론, 전산언어학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우편번호 : 305-764
전화번호 : (042)821-6157
Fax번호 : (042)822-0986
E-mail : yuson_k@hotmail.com

부분을 구성하는 담화 단위에는 차이가 있다. 서술 담화 문맥에서 주로 연관된 주구조와 부구조 사이의 차이는 전경과 배경의 차이와 동일하다. 전경은 이야기 줄기를 형성하는 사건들로 표현되는데 제시의 순서가 시간적 순서와 일치되는 반면 배경 재료는 이런 특정한 시간적 특성이 결여된 부수적인 정교화로 구성된다.

서술 담화연구에서 서술 골격/서술 중추, 전경/배경, 주요 사건 절/계속 서술 절과 주구조/부구조 등 다른 용어들이 사용된다.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구조는 주구조와 구별되는 근본적으로 다른 식별 기준을 가진다. 많은 학자들이 언어적 표지의 분류의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한다. 하나의 발화는 예를 들어 특정한 시제, 어순, 형태적 표지를 가지면 서술 담화의 주구조에 속한다. 서술 담화연구에서 시간적 순서로 주구조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구조-부구조의 구별은 서술 담화에만 제한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식별기준이 필요하다. Reinhart(1)은 개체 고유 속성 인식의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한다. 주구조-부구조 구별은 개체 고유 속성 이론에서 상징-장 구별의 언어적 개념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서술 담화의 연속성은 개체 고유 속성 이론의 연속적인 윤곽이나 모양을 선호하는 연속성 개념과 연관된다. 그러나 시간순서나 개체 고유 속성 이론 모두 관련된 자료의 구조적 상태를 설명하지 못한다.

담화 내 계층 구조는 담화 표지의 사용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담화표지는 화자가 수행하는 부분의 담화가 현재의 담화 상태와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관한 신호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이다. 전산언어학의 선행연구들이 전역적 담화 구조 내에서의 변화를 표시하는데 있어서의 담화 표지의 역할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by the way*는 일탈의 시작을 표시하고 *anyway*는 일탈로부터의 복귀를 나타내고 *now*는 새로운 주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Sowa의 개념구조론의 체계 내에서 담화의 계층 구조와 그 구조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시인 담화 표지의 예를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개념구조론은 의미론적인 개념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는데 화용론적인 측면의 기술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Sowa의 기본적인 개념구조론의 형성 배경과 기술 체계를 간략하게 보인다. 3장에서는 담화의 계층 구조에 관해 주구조와 부구조로 나누어 설명하고 구조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 사용의 예를

제시한 후 개념구조론의 체계 내에서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개념구조론

Sowa(2)에 의해 개발된 개념구조론의 지식 표현 언어인 개념도식은 Peirce의 존재도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개념도식을 이용하여 논리적이고 명료하고 인간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컴퓨터에 의한 자연언어 처리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의미를 기술한다. 또한 개념구조이론은 의미론에 바탕을 두고 개별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언어 보편적 이론이다. 존재도식에서의 논리구조와 도식적 표기 방식을 기반으로 간단하고 자연언어 문장의 명제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논리 체계이고 지식표현언어이다. 개념도식은 유한적이고, 연결성이 있으며 개념과 개념 관계의 이원성의 도식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Mary gave John a book.'의 개념도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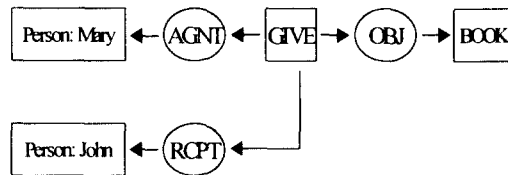


그림 1. 개념도식

개념도식에서 사각형은 개념을 나타내고 원은 개념 관계를 나타낸다. 표지의 편의상 사각형 대신 각괄호를 사용하고 원대신 괄호를 사용하여 선형적 표기로 나타낼 수도 있다. (1)은 그림 1의 선형적 표기 체계이다.

(1) {PERSON: Mary}←(AGNT)←{GIVE}→
{OBJ}→ {BOOK} {PERSON: John}←(RCPT)↓

개념 관계는 크게 격관계, 공간관계, 속성, 문장간 관계, 수학적 관계, 매개 관계로 구분되고 담화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문장간 관계에 해당된다. 추론을 위한 배경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구조가 스키마이다. 스키마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패턴으로 다른 경험을 해석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스키마는 구조상 유형정의와 비슷하다. 그러나 하나의 개념유형은 하나의 정의를 갖지만 여러 가지의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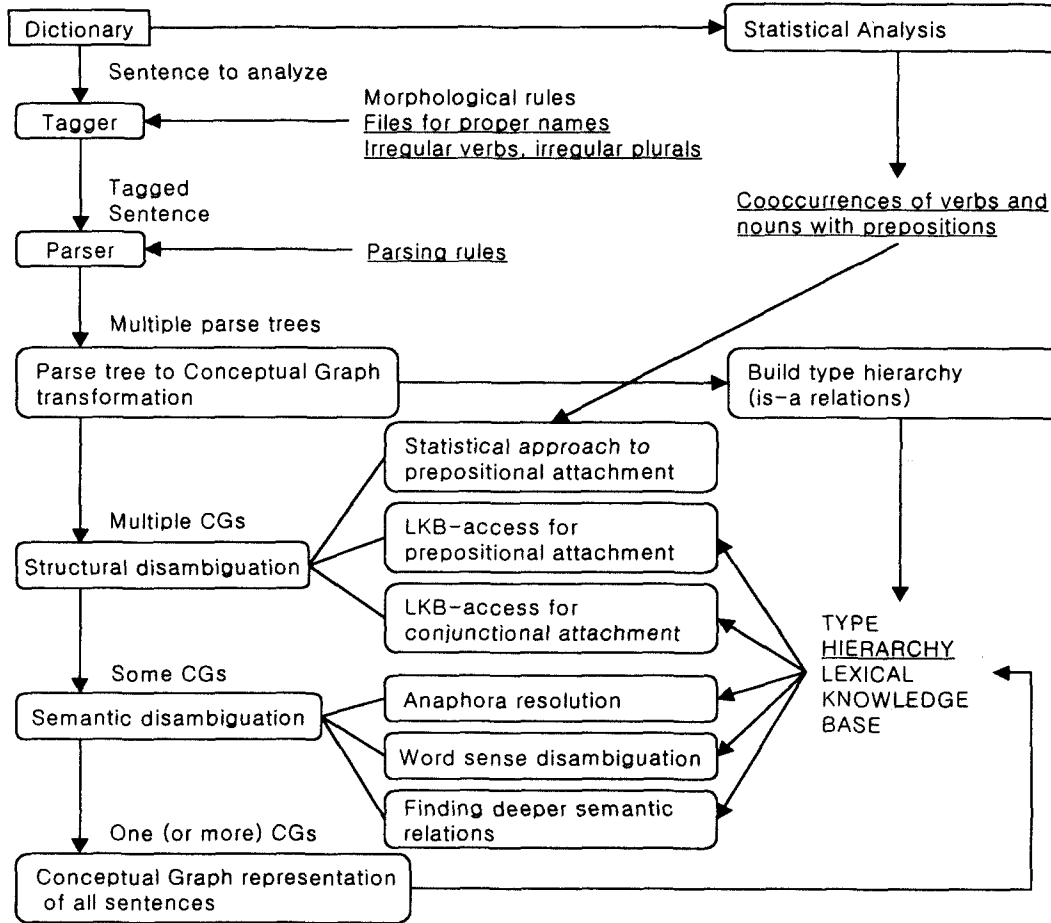


그림 2. 개념 도식 표상 단계

의적 스키마를 갖는다. 각각의 스키마는 하나의 개념 유형이 모든 관점을 표현하고 그 집합을 스키마 다발이라고 한다. 그림 2는 문장이 개념도식으로 표상될 때의 단계적 과정을 나타낸다(3). 문장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개념도식으로 표상되며 이는 지식처리와 자연언어 처리를 통합할 수 있는 인지체계 모형을 이룬다. 개념도식은 단일 문장에 대한 표상에 국한되지 않고 문맥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즉 도식은 단일 단어, 구, 단일 문장 뿐 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를 표상 할 수 있다. 각 개념은 독립된 단위인 동시에 다른 개념들과 연결된다. 담화의 해석은 문장별로 점진적으로 처리되고 상호 관련되어 전체 담화가 하나의 개념도식을 이룬다.

3. 담화 내 계층 구조와 담화 표지의 기술

3.1 주구조와 부구조

Grosz와 Sidner(4)의 담화구조 이론은 전경과 배경의 명확한 구별은 하지 못했지만 담화의 주구조의 광범위한 개념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잠재적으로 제시한다. 배경은 담화 의도성의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담화의 선두 부분에 기여하지 않는 자료를 포함한다. 이 체계에서 기여드는 부구조는 일탈로 분석된다. 어떤 개체에 의해 부분에 연결된 하나의 끼어드는 부분은 둘 다에 두드러지만 담화 부분 목적을 가지며 방해받는 부분의 담화 부분 목적이 기여하는 담화 목

적과 연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담화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전경에 있는 자료 즉 전경의 목적 충족 부분과 이 부분에 단순히 종속적인 자료 즉 명료화와 고정 하위대화를 구별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의도성 접근은 목적 충족 자료가 목적 종속 전경 자료를 선행한다는 면에서 두가지를 구별하는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명료화 하위 대화는 좋은 예이다.

Litman과 Allen(5)은 이런 종류의 하위 대화를 영역 계획과 담화 계획의 구별로 설명하고 후자의 계획만이 명료화 하위 대화에 내재한다고 설명한다. Lochbaum(6)은 일원론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만 일반적인 함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담화의 의도성 측면의 기준은 불충분하다. 지역적/전역적 기준을 구성하는 질문에 의한 기준 중 Labov(7)는 서술 담화의 주 구조 식별을 위한 지역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서술 담화에 속하는 부분은 *And then what happened?*와 같은 주요 질문에 대한 적당한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도 시간적 순서와 개체 고유 속성 인식이 직면한 비평을 면하기 어렵다.

Klein과 Von Stutterheim(8)은 기존 기준에 반대하여 전경과 배경 구별에 대한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질문(*quaestio*)이라고 불리는 것이 모든 텍스트에 내재한다. 이 명시적이고 잠재적 질문은 텍스트의 주 구조를 구성하는 일련의 문장으로 대답된다. 서술 담화에 관해서 질문은 특징적인 시간적 조직과 관계되는 특정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What happened to you at t_1 , . . . , t_n*?와 같은 추상적 질문이다. 이는 이야기 흐름을 구성하는 개별 문장으로 대답되는 지역적 질문으로서 기능을 하는 일련의 부분적 문장으로 나누어진다. 이 기준은 주구조의 협의의 개념을 수반한다.

주제/논평의 개념은 담화의 다른 구조적 층위 사이를 구별하는 주요 기준을 구성한다. 주제/논평의 개념은 또한 이 체계 내에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구조적 단계 즉 주구조, 하위구조, 부구조의 구별로 나타나고 도식화해서 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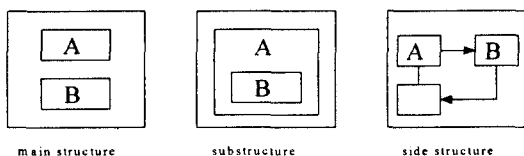


그림 3. 담화의 계층 구조

담화의 주구조는 선두하는 주제 형성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주제 형성 질문은 전역적 담화 주제를 정의한다. 반면에 하위구조는 하위질문의 결과이다. 상응하는 하위질문의 완성 기능 때문에 이런 하위구조는 주요 주제의 계속을 암시하는 주구조의 부분이다. 반면에 부구조는 주제 이탈을 암시한다.

Van Kuppevelt(9)는 주제성이 담화 구조의 기본적인 구성 원칙이라는 체계를 제시한다. 중심적 가설은 담화의 본질 구조가 내부적 계층적 주제-논평 구조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담화 생성에 관해서, 이 구조는 명시적 잠재적 주제-형성 질문의 문맥적 도출 과정에서 생긴다. 화자나 작가에 의해 답해지는 질문은 독백 뿐 아니라 대화에서도 항상 명시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지만 자주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 청자 중심 담화에 관해서는 이런 잠재적 질문은 청자의 마음에 나타난 대로 화자에 의해 기대되고 그가 선행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문맥을 해석하는 동안 제시된 모형은 주제와 논평의 역동적, 문맥 의존적, 질문에 근거한 개념이다. 모든 문맥적으로 도출된 명시적 혹은 잠재적 (하위) 질문 Q_p 는 (하위) 주제 T_p 를 구성하는 담화에서 대답되고 T_p 는 가능한 외연적 가치의 집합으로 사람, 물체, 장소, 시간, 이유, 담화에서 나타나는 개체의 집합이다. T_p 는 Q_p 의 답으로 선택된다. 논평 C_p 는 답 A_p 로 제공되는데 무엇이 요구되는 가이다. 만일 화자가 A_p 가 청자에게 만족스럽다고 가정하면 T_p 는 닫힌다. 그러나 A_p 가 불만족스러우면 하위질문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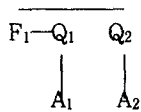
주제인 질문쌍은 질문의 통사적 분석에서 단수 혹은 복수의 질문 용어의 가능 외연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질문 *Who (is the one that) is laughing?*에서 단수 용어 *the one that is laughing*이 표현된다. 이 용어는 문맥적으로 주어진 혹은 도출된 불확정성을 나타낸다. 이 용어의 가능한 외연의 집합을 예를 들어 사람들의 문맥적으로 주어진 집합 *{Alan, Doris, Julia}* 이라고 하자. 대답으로 제공된 논평이 실제 상황에서 이 용어의 외연인 이 집합에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선택은 답이 *A woman is laughing*이라면 필수적으로 단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주제는 질문의 통사적 분석에서 주제 용어의 내포이다. 반면 논평은 만족된다면 실제 상황에서 이 용어의 외연이다.

담화에서 질문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적 매개 변수: 즉 공급문, 주제 구성 질문, 하위질문 구성 하위질문을 수반한다. 공급문 F_n 은 특정한 기능

을 가진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사건으로 담화에서 질문하는 과정을 시작하거나 담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하지만 선행담화의 결과로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경우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언어적 공급문은 담화의 주제 없는 단위 혹은 질문시 더 이상 현저하지 않은 주제이다. 만약 담화 단위가 언어적 공급문으로 작용하면 연관된 배경 지식과 함께 선행 질문에 의해 문맥적으로 제약받지 않은 불확정의 집합이 제공된다. 공급문의 결과로 직접 질문되는 모든 명시적 혹은 잠재적 질문은 주제 구성 질문의 기능을 한다. 예는 (2a)의 대화에서 명시적 질문 Q₁과 Q₂이다. 각각의 질문은 언어적 공급문으로 작용하는 개시문장 F₁에 의해 야기된다.

- (2) a. F₁ A: Mark really needs to see this article in *Psychology Weekly*.
 Q₁ B: Why? What's it on?
 A₁ A: Reasons for negative behavior patterns—like procrastination, habitual lateness. . .
 Q₂ B: So what does it say?
 A₂ A: That people who are always late often do it for a reason either conscious or unconscious. It could be an expression of anger and resentment or a way of existing authority. It could be even be anxiety.

b. Question-answer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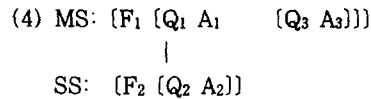
주제 구성 질문과 달리 하위 질문은 질문과정에서 자율적 상태를 갖지 못한다. 종속적 기능은 문맥적 도출이 고려되는 순환적 과정을 보면 명확하다. 주제 구성 질문이 불만족스럽게 답변될 때 하위 질문을 야기시킨다. 이는 주제 구성 질문이 만족스럽게 대답될 때까지 순환적으로 계속된다. 명시적 잠재적 질문 Q_p는 하위 질문을 구성하는 A_{p-n}을 Q_{p-n}에대한 만족스런 대답으로 완성할 목적으로 선행하는 질문 Q_{p-n}에 불

만족스런 대답 A_{p-n}의 결과로 질문될 때 하위 질문을 구성하는 하위질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화제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선행 담화 부분의 결과로 새로운 주제가 소개될 때 주제 이탈이 일어난다. (3)의 예에서는 일시적인 주제이탈의 결과로 질문-대답쌍으로 구성되는 끼어드는 부구조가 나타난다 (9).

- (3) F₁ A: Today the Ministers of Agriculture of the European Community were not present at the installation of their new member.
 Q₁ B: Why not?
 A₁/F₂ A: They had a meeting about the large European butter surplus.
 Q₂ B: (By the way,) what solution did they propose for this problem?
 A₂ A: They proposed to undersell this butter on the European market.
 Q₃ B: Why did they have to meet today?
 A₃ A: Any postponement would be irresponsible in view of the recent worsening of the problem.

(3)의 담화는 (4)와 같은 분절 구조를 가진다.



주제 이탈의 경우 두 가지 주제가 동시에 실현된다. 구주제는 신주제가 침부될 동안 여전히 열려 있다. 그때 구주제는 현저함을 상실한다. 일반적으로 주제 이탈에 의해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려진 주제는 현저하다. 주제 이탈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최종적일 수도 있다. *by the way*와 같은 담화 표지가 사용되거나 새로운 담화 부분의 개시를 표시하는 일시적이고 언어학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화제 전환 후에 구 화제가 제기되고 현저함을 회복할 때 식별된다. 부구조는 괄호로 표시된다. 부구조 형성의 회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현상으로 (5)와 같이 정의된다.

(5) 주제 이탈: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 Q_b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선행하는 주제 T_{p-n} 과 관계되는 주제 이탈을 나타낸다.

- (i) Q_b 는 선행하는 담화 부분의 결과로써 질문된다.
- (ii) Q_b 는 T_{p-n} 을 정의하는 화제 구성 질문의 하위 질문이 아니고 화제 전환이 이루어진다.
- (iii) 주제 종결의 역동적 원칙에 따라서 주제 T_{p-n} 은 질문 Q_b 가 행해질 때 담화에서 현실성을 상실한다.

(5)의 기준(i)는 진정한 중단이나 의미적으로 관계 없는 중단과 구별하는데 필요하다. (6)의 예에서 *Stop that you kids*는 진정한 중단의 예이다.

- (6) John came in and left the groceries
Stop that you kids
 and I put them away after he left

주제 이탈이 선행하는 주제 구성 질문과 관련되고 끼여든 것을 함축하지만 진정한 중단과는 반대로 주어진 언어적 입력으로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탈은 화제가 벗어난 담화의 주구조와 연결된 부구조를 만든다. 기준(ii)는 부구조를 담화의 선두적 부분에 속한 종속 구조와 구별하고 기준(iii)은 주제 이탈을 부수 주제 변화와 구분한다.

3. 2 개념구조적 기술

3. 1에서 담화 내 주구조와 부구조, 하위구조를 나타내는 담화표지들과 이탈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개념구조론의 체계 내에서 부구조와 하위구조를 나타내는 이탈 등의 현상을 개념관계인 이탈(digression: DIGR), 화제전환(topic shift: T-SHFT), 틀(frame: FRAM)의 세 가지 개념관계로 설정하여 기술해 보겠다. 이탈은 담화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도중에 대화자가 관련되지만 옆길로 새는 주제로 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낸다. 이 때는 원래의 주제를 종결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대화자는 일시적 중지에 대한 신호를 준다. 이탈 표지는 청자에게 새로운 화제가 계속되지만 현재의 주제가 나중에 다시 재기될 것이라는 신호를 준다. 다음은 이탈의 예이다.

- (7) a. I want to tell you about my trip, but, by

the way, how is your mother?

- b. And, quite *by the way*, how is your sister?
- c. *By the way*, have you received that letter yet?

(7a)의 예문은 다음과 같은 개념구조로 기술된다.

(8)

{PERSON: #I*x}←(EXPR)←(WANT)→ (THME)→(PROPOSITION: [*x]← (AGNT)←(TELL)→(EXPR)→ {PERSON: #you}→(THME)→(TRIP)→ (POSS)→[*x]} →(DIGR)→ {STAT: ?}←(CHRC)←(MOTHER) →(CHLD)→(PERSON: #you)
--

- (9) A: Do you know where I can buy tickets to the play?
 B: Actually, I have an extra ticket I'd be glad to give you. I won't need it because I'm one of the actors, which *by the way* I'm very excited about.

(9)의 예문에서는 표를 어디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도중에 주제가 본인이 그 연극에 출연한 배우라는 얘기로 이탈되는데 개념구조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POL)→(PROPOSITION: {PERSON: You}→(STAT)→(KNOW)→(THME)→ ((PSBL)→({A}←(LOC)←(PERSON: I)← (AGNT)←(BUY)→(OBJ)→(TICKET: (*))→ (INST)→(PLAY)}).{(PERSON: I)→ (STAT)→(HAVE)→(OBJ)→(TICKET)→ (CHRC)→(EXTRA)} →(DIGR)→{[(PERSON: I)→(STAT)→ (ACTOR)]}.

다음의 예문도 이탈이 사용된 담화의 예를 나타낸다.

- (11) A: *By the way*, Cynthia. It's awful of me. I know you can care for my dog while I'm away next week?
 B: (Now look) (Here), this is your third time you've left me with your dog.

(11)에서 *by the way*는 이전 담화에서 일탈된 주제인 개를 돌봐 달라는 부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담화 표지 *by the way* 외에 다음과 같이 일탈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도 있다.

- (12) *By the bye*, how do you spell your name?
 (by here means sideway)
 (13) a. *Incidentally*, he didn't want the book.

b. ? →(DIGR)→
(NEG)→[(PERSON: He)←(EXPR)←(WANT)→(OBJ)→(BOOK: #)]

(13a)에서 *incidentally*는 일탈의 표지로 (13b)의 개념구조로 나타난다. 일탈된 담화는 그 이전 담화로 복귀된다. 담화 표지 *anyway*는 (14a)에서 중단된 문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나타내고 개념 구조로는 (14b)와 같이 나타난다.

- (14) a. *Anyway*, do you know the answer?
 b. ? →(RETN)→
(POL)→(PROPOSITION:[PERSON: #you]→(STAT)→(KNOW)→(OBJ)→(ANSWER: #)

- (15) Last weekend we went to Winchester with Simon and Jane. They've got a Ford now. *Anyway*, when we got there we found that the Cathedral was closed.

(15)의 *anyway*는 바로 전의 언급이 일탈임을 나타낸다. 위의 담화를 개념구조로 기술해보자.

- (16) [PERSON: #we x]←(AGNT)←(GO)→

(DEST)→(CITY: Winchester)→
 (ACCM)→(PERSON: {Simon,Jane}*y)→
 (PTIM)→(LAST-WEEKEND)

→(DIGR)→ [(*y)←(STAT)←(HAVE)→(OBJ)→(FORD)→(PTIM)→(NOW)]
 →(RETN)→

[(*x)←(AGNT)←(FIND)→(THME)→
 [[(CATHEDRAL:#)→(CHRC)→
 [CLOSED]]]→(SIML)→[(*x)←(AGNT)←(ARRIVE)→(LOC)→
 [PLACE: #there]]

담화표지 *anyway*의 사용은 주로 구어 영어 담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문어에서도 나타난다. 영어 구어 언어자료에서 분명한 *anyway*의 기본적인 기능은 *anyway*가 사용된 문장과 부로 선행한 발화를 구분 짓는 것이다. 수많은 변이형과 더불어 *anyway*는 일탈의 끝을 표시하고 이전의 화제로 되돌아가는 주요한 언어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anyway*는 담화에서 선행화제와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를 통해 대화상 결합에 기여하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 의미는 오로지 담화의 실제 사용 상황 맥락에 달려 있으며, 이들 개별 낱말의 본유적인 의미는 없거나 말소되어 있다. 또 한편 이들 담화 표지는 대체로 비격식적인 표현이나 대화에서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복귀의 *anyway*는 문두에서 거시차원 조직의 연속성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 (17) He drove to the dealer shop. He'd always wanted a Jag. I think I heard a noise. *Anyway*, he decided to buy one.

(17)의 담화를 개념구조로 기술해보자.

(18) [[(PERSON: He=*x)←(AGNT)←(DRIVE)→(DEST)→(DEALER-SHOP)]
 →(CAUS)→[(*x)→(STAT)→(WANT)→(OBJ)→(CAR: Jaguar)→(FREQ)→
 [ALWAYS]]

→(DIGR)→

```

    {[(PERSON: =*y)→(STAT)→(THINK)
    →(THME)→[*y]←(AGNT)←(HEAR)
    →(OBJ)→(NOISE)]}
    →(RETN)→
    {[*x]←(AGNT)←(DECIDE)→
    (THME)→[*x]←(AGNT)←(BUY)
    →(OBJ) →[CAR: Jag]}].
    
```

화제 전환은 선행 화제와 후행 화제 면에서 전환됨을 나타낸다. Now는 앞에서 말하던 것을 일단락 짓고 새로운 기술 전개를 시작할 것을 알리는 화제 전환 표시이다.

- (19) A: Now, where's my coat?
 B: So, you're leaving, then?

이 경우 A는 now를 써서 말해오던 화제에 관한 말을 종결하고 작별하려고 한다. 개념구조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20) [?] →(T-SHFT)→

```

    {[(PERSON: #I x)←(AGNT)→(TELL)
    →(EXPR)→(PERSON:#you)←(AGNT)
    ←[SAY]→(THME)→(COAT)→(LOC)
    →(PLACE: ?)(POSS)→[*x]]}
    →(EFACT)→
    {[(POL)→[(PERSON: you)←(AGNT)←
    [LEAVE]]}
    
```

또 다른 화제의 전환의 예를 보자.

- (21) Now, lemme give you an idea when I talk about fantasy.

위의 담화를 개념구조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2) [?] →(T-SHFT)→

```

    {[(PERSON: I)←(AGNT)←
    [GIVE]→(RCPT)→(PERSON: You)→
    (OBJ)→(IDEA)]→(SIML)→[(PERSON:
    I)←(AGNT)←[TALK]→(THME)→
    [FANTASY]].
    
```

담화 표지의 식별 및 생성은 담화연구의 중심과제로 담화 표지에 의해 전달되는 구조적 정보는 조음 해결과 화자 의도 추론이나 화자 계획의 인식에도 중요하다. 담화 표지는 구조적 경계나 담화 부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조음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23)의 예에서 *the system*과 공동 지표된 대명사 *it*의 해석은 *say*와 *then*과 같은 표지의 해석으로 용이해진다. 가능성 있는 잠재적 선행사 *as an expert database for an expert system*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10).

- (23) If the system attempts to hold rules, say as an expert database for an expert system, then we expect it not only to hold the rules but to in fact apply them for us in appropriate situations.

여기서 *say*는 담화 하위 주제의 시작을 나타내고 *then*은 하위 주제로부터의 복귀를 나타낸다. 잠재력이 있으나 부정확한 선행사가 하위 주제에 나타나면 문제의 대명사가 주요 주제로 복귀되어 나타나므로 부정확한 선행사가 구조적 이유로 제거된다. 그런 담화 분절 없이는 부정확하고 잠재성 있는 선행사가 표면적인 근접성과 수 일치 때문에 선호되었을 것이다. 주제 구조의 명시적인 지지자로서의 표지 없이는 의미적 내용의 더 상세한 분석에 의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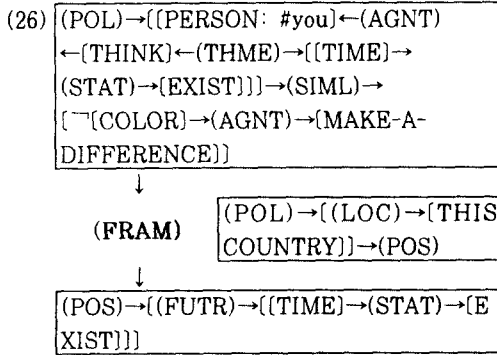
틀은 담화를 일정한 단위로 묶는 효과를 지닌다. 답변자는 답의 인접성을 미룰 수 있는 협력 참여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well*을 사용한다. 화자는 질문의 명료화 없이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답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한다. 그래서 내포 질문/대답 쌍이 만들어진다(11).

- (24) Speaker A: Question 1
 Speaker B: Question 2
 Speaker A: Answer 2
 Speaker B: Answer 1

화자는 *well*로 답을 표시함으로써 초기 질문자의 연관성을 불러일으킨다. 결과적으로 그 답을 미뤘던 질문/대답 쌍을 종속화 시킨다(12). 다음의 예를 보자.

- (25) Debby: [Q1] Do you think there'll ever be a time when color doesn't make a difference?
 Jack: [Q2] In this country?
 Debby: [A2] Yeh.
 Jack: [A1] Well of course there will.

위의 담화는 개념구조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답 연기에서의 well의 역할은 일시적으로 회피된 질문의 연관성을 다시 일으키고 대답을 제공하는 주대화적 과업을 위한 방금 전의 얘기의 연관성을 없애는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과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주구조와 부구조, 하위구조 등의 담화 내 계층 구조에 대한 증거로 일탈을 중심으로 부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주제 일탈의 구조와 정의에 관해 분석하고 중단과 화제 전환 등과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지식 표현 언어인 Sowa의 개념구조론의 체계 내에서 개념관계로 일탈, 화제 전환, 틀의 관계를 설정하여 담화 내 계층구조와 담화 부분과의 의미적인 관계를 규명하였다.

논리구조와 도식적 표기 방식을 기반으로 간단하고 자연언어 문장의 명제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논리 체계이고 지식표현언어인 개념구조론은 논리적이고 명료하고 인간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컴퓨터에 의한 자연언어 처리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 또한 개념구조이론은 의미론에 바탕을 두고 개별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언어 보편적 이론이므로 자동번역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체계이다. 인간의 지식이 확장과 변화가 가

능한 것과 같이 개념구조론의 체계 내에서도 스키마는 확장과 변화가 가능하므로 개념구조론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담화 내의 구조적 정보는 담화 표지의 식별 및 생성 뿐 아니라 조응 해결과 화자 의도 추론 등의 인식에도 중요하고 담화 표지의 사용은 구조적 경계나 담화 부분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향후 담화 표지 목록 전반에 걸쳐 담화 구조와 조응 현상들을 개념구조론의 체계에서 규명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1] Reinhart, Tanya. (1984). Principles of Gestalt Perception in the Temporal Organization of Narrative Texts. *Linguistics* 22, 779-809.
- [2] Sowa, John. (2000). *Knowledge Representation: Logical, Philosophical, and Computational Foundations*. Pacific Grove, CA, Brooks Cole.
- [3] Barrière, Caroline. (1997). *From a Children's First Dictionary to a Lexical Knowledge Base of Conceptual Graphs*. Ph. D.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4] Grosz, Barbara J. and Candace L. Sidner. (1985). Discourse Structure and the Proper Treatment of Interruptions.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832-839. Los Altos, CA, Kaufmann.
- [5] Litman, Diane J. and Allen, James F. (1990). A Plan Recognition Model for Subdialogues in Conversation. *Cognitive Science* 11, 163-200.
- [6] Lochbaum, Karin E. (1994). *Using Collaborative Plans to Model the Intentional Structure of Discours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Published as DAS Technical Report TR-25-94).
- [7] Labov, William. (1981). Speech Actions and Reactions in Personal Narrative. Deborah Tannen ed.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 219-247.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8] Klein, Wolfgang and Von Stutterheim, Christiane. (1987). Quaestio und Referentielle Bewegung in Erzählungen. *Linguistische Berichte 109*, 163-183.
- [9] Kuppevelt, Jan Van. (1995). Main Structure and Side Structure in Discourse. *Linguistics 33*, 809-833.
- [10] Hirschberg, Julia and Diane Litman. (1993). Empirical Studies on the Disambiguation of Cue Phrases. *Computational Linguistics*, 19-3, 501-530.
- [11] Schegloff, Emanuel A. (1972). Sequencing in Conversation Openings. John Gumperz and Dell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346-80.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12] Schiffrin, Deborah.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